

## 차이의 공간을 꿈꾸며: 『공간의 생산』과 실천

김남주

런던대 박사과정

## 1. 서론

왜 르페브르가, 특히 그의 공간생산론이 기왕의 공간관련 학문들에서 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사회학, 여성론, 문화학 등에서 두루 가히 하나의 현상이라 할 만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일까? 이러한 유행은(적어도 영어권에서의) 도대체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르페브르의 이론이 가진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이 그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맑스를 되새기면서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철학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해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1845년에 쓰여진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의 마지막 11번째 항인 이 테제는 뒤이어 『공산당선언』(1848)을 낳게 한 혁명적 세계관의 모태이다. 변혁의 전망을 가진 이론, 실천으로서의 이론이 처음으로 맑스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다. 나름의 방식으로 맑스를 현재화하려한 여타의 맑스주의자들로부터 르페브르를 구별시키는 점은 무엇인가? 공간적 상상력으로 구체화된 르페브르식 변혁의 전망의 특색은 무엇인가? 이 글은 『공간의 생산』을 통해 르페브르의 이론이 어떻게 이러한 실천성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의 몇 가지 질문들에 한꺼번에 대답하고자 한다. 먼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이 특유의 실천론으로 이해되는 이론적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공간생산론 자체의 이론적 내용을 가지고 그 실천적 함의를 짚어본다.

## 2. 왜 ‘생산된다’고 했는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왜 변혁적 실천론, 또는 정치적 전략으로 읽히는가? 이것은 일차적으로 르페브르 이론이 프랑스의 역동적 현실에의 실천적 개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지만, 그의 이론적 작업의 특성에서도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간생산론 자체의 실천적 함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공간생산이라는 개념과 공간생산론이라는 전략적 가설에 담긴 실천적 의도를 이러한 이론적 작업의 맥락에서 밝혀 보는 우회로를 택한다.

### 1) 공간과 생산

르페브르가 생산개념을 공간이론에 도입한 이유는 우선 도시공간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기호학 진영에서는 공간을 해석되어야 할 또 하나의 텍스트로 다루는 데 반해, “공간은 읽혀지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삶이 있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 생산되는 것”(Lefebvre, 1991: 143)이라는 르페브르의 관찰이 그의 주장의 대강을 짐작케 해준다. 다시 말해서 기호학적으로 사회공간을 해독하려는 시도는 “공간을 메시지의 차원으로, 독해의 차원으로 깎아 내린다. 이는 역사와 실천 모두를 회피하는 것이다(Ibid.: 7).” 르페브르가 보기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공간 그 자체와 정주행위를 묘사하고 해석하는 이러한 기호학적 편향은 중국에 실천의 불모지대로 빠지게 마련인데, 곧

공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에 깃들게 마련인 ‘생산’이라는 인간 실천의 실마리를 짚어내지 못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할 실천적 전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의 과학을 탄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예술의 사회적 생산론, 문학반영론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문학생산론, 문화생산론과 같은 ‘사회적 생산론’은 각각의 분야에서 대항담론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한 지 오래이다. 왜 ‘생산론’인가? 왜 예술, 문학, 문화 등속은 ‘생산’ 개념과의 깃지끼기를 통해 대항성(바꿔 말하자면 변혁적 실천의 암시와 가능성) 획득을 꾀하는가? 맑스가 벌과 건축가의 비교에서 그려내듯, 그러한 깃지끼기 전략은 생산이라는 인간의 본원적 실천이 가졌던 창조성과 의도성, 그리고 집단성을 복원시켜야겠다는 필요에서 비롯된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적’ 생산(이를테면 자본주의 문화산업, 예술산업 따위)의 반복성과 등질화, 그리고 과정과 생산물 모두로부터의 소외를 비판해내고, 동시에 이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성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의 소산이었던 것이다.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 또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맥락에 견주어 이해됨직하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독해법과 더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그의 생산개념이 자신 특유의 미묘하고 복잡한 변증법적 사고에서 자아져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종종 영미 실용주의 철학 전통의 명쾌한 도식적 이해와 정의의 틀을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지곤 하지만, 그 풍부하고 기름진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 보아야 공간생산론의 실천적 함의를 이해할 토대를 갖추게 된다.

르페브르는 ‘생산’과 ‘생산물’, ‘작품’과 ‘생산물’, ‘자연’과 ‘생산물’이라는 짝을 엄격한 정의를 통해 분리시킨 후 다시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방만하게 또는 협소한 경제적 용어로 사용되어온 생산의 개념을 새로이 자리매김시킨다(*Ibid.*: 68-73). 르페브르가 생산개념을 도입한 것은 생산의 결과(product)만이 아니라 생산의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주체’와 ‘대상(객체)’이라는 철학적 사고의 대립물을 통합시키고 주체를 생산과정 속에다 복원시키려는 시도이다. “‘누가 생산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왜 또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서는 생산의 개념이 그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Ibid.: 69)라는 지적을 통해 르페브르는 ‘생산한다’라는 행위의 주체와 그 과정, 그리고 ‘생산된 것’이라는 결과물의 통합으로서의 생산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르페브르의 ‘생산’개념은 그 속에 생산과정, 생산주체, 생산물 이 3자가 변증법적으로 맞물려 일체화하는 모습을 담아낸다.

그런데 ‘작품과 생산물(work and product)’, ‘자연과 생산’을 대립항 삼아 르페브르가 자신의 생산개념에 담아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작품과 자연은 ‘생산’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다. 그것은 복제할 수도 재생산할 수도 없는 독특한 것이며 의도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생산물과 생산에 대립시킨다. 하지만 이들 대립항 역시 “작품은 어떤 의미에서 생산물에 내재하며, 반복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고 해서 생산물이 무조건 창조성을 억누르는 것은 아니다”(Ibid.: 77)라는 결론에 이르러 화해한다. 르페브르의 구도 속에서는 이 삼각변증법의 일체가 끝내는 ‘생산하다’라는 개념 아래에서 한데 묶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르페브르의 생산개념은 만들어진 결과(형태)나 과정(구조)만이 아니라 생산주체인 인간의 ‘상상’(내용)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르페브르의 사전 속에서 ‘생산한다’는 것은 대상적이며 의식적이며 상상적인 여러 겹의 인간실천을 뜻한다.

## 2) 전략적 가설로서의 공간생산론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자본주의의 위기극복방식으로서 공간의 상품적 생산을 밝혀내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맑스의 『자본론』이 자본의 메커니즘을 단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착취적 속성에 주목함으로써 ‘실천의 해방학’으로 제출된 것과 같다. 다시 말해 르페브르가 “공간 이론이 지금의[1974년 당시] 혁명적 운동에 어떻게 관련될까?”(Ibid.: 420)라고 되물으며 이론을 위한 이론의 함정을 스스로 경계하듯, 이론은 인간의 변

혁명적 실천과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렇게 실천으로 발현됨으로써 이론의 과학성도 검증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간의 생산』에서 르페브르는 어떤 기획을 내세움으로써 이론의 실천적 기여를 피하였나?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에 바탕한 것이라고 단언한다(*Ibid.*: 419). 이처럼 이론적이면서 동시에 실천적인 ‘원대한 기획’으로서 『공간의 생산』을 상재(上宰)하면서 르페브르는 앞서 논의한 생산 개념에 준거해 다듬어진 ‘공간생산론’을 하나의 ‘전략적 가설’(*Ibid.*: 60)로 내세운다. 노철학자의 가설 제시가 전장에 나서는 장수의 전략에 비유되고 있음은 그 자체로 비장하다.

다른 공간, 다른 삶, 다른 생산양식을 향해 열려진 길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획은 서로 대립되어 화해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과학과 유토피아, 현실과 이상, 고안된 것과 살아 숨쉬는 것을 넘나든다. 이 기획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변증법적 관계를 까발림으로써 이들 사이의 대립을 극복하고자 한다(*Ibid.*: 60).

혁명을 기획한다는 것은 현재를 변증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현재의 과학적 분석은 그와 공시적으로 작용하는 과거를 끌어 당겨움으로써만 가능하며, 또 한편으로 미래로의 문을 현재에 매달지 않는 한 혁명의 기획은 공상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또는 인간세계의 변화를 도모하는 모든 기획은 무릇 실천하는 인간의 상상력에 기초한다. 공상적 사회주의와 과학적 사회주의를 구별짓는 잣대는 과거적 ‘분석’과 현재적 ‘실천’과 미래적 ‘상상’의 변증법적 구성에 있다. 르페브르의 변증법적 사고가 돋보이는 명구인 ‘불가능한 가능’ 또는 ‘가능한 불가능’은 바로 상상의 미래를 실천하는 현재에 옮겨놓은 것이어서 돋보인다. 현재의 실천에서 불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한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불가능한 미래는 현재의 실천 속에서만 가능성으로 전화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차이의 공간을 생산해내는 상상의 힘, 삶의 힘을 역설한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기왕의 국가권력 쟁취에 초점을 맞

추어온 사회주의 변혁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말미암는다. 즉, 그가 내세우는 공간생산의 전략적 가설은 기존 혁명론의 당대적 외연 확장인 것이다. 이 가설은 “혁명은 더 이상 국가의 전복이라는 정치적 변화, 또는 생산수단의 집단적 또는 국가적 소유라는 의미로는 정의되지 않는다”(Ibid.: 422)는 르페브르의 사고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실천적 결과물이다. 스탈린주의적 국가 사회주의가 내건 ‘사회를 변혁하고 삶을 개조하자’는 구호는 그에 합당한 공간을 생산할 전망을 가지지 못한 공염불에 불과했다고 그는 주장한다(Ibid.: 59). 194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근 2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 일상 연구에 뒤이어 르페브르가 펴낸 『도시혁명』(1970), 『공간과 정치』(1973), 『자본주의의 생존: 생산관계의 재생산』(1973) 등의 일련의 저술들은 자본주의의 역사가 공간을 통한 위기 극복의 역사이었음을 강조하는 연작으로 읽힐 법도 하다. 그 자본주의 공간 역사 연구의 정점에 『공간의 생산』(1974)이 있음은 두루 합의되고 있는 바이다. 전후 대량생산의 황금기라고도 일컫어지는 전성기 자본주의 체제가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공간생산을 통해서 체제 재생산의 통제력을 일상 구석구석으로 확대해왔다는 르페브르의 자본주의 분석이 차이의 공간을 생산하고 일상을 변혁시키려는 이론의 정립으로 이어진 것은 “완전한 혁명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얻을 것이 없다”<sup>1)</sup>는 현실경험의 소산이다.

1) ‘완전한 혁명’에 대한 이 진술에서 르페브르는 실패한 혁명의 대표와도 같은 1968년 혁명 이후 파리 지성계에 팽배했던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즉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이 68년 사태를 ‘잃어버린 혁명’(Aron, 1968)이라고 아쉬워하며 펴낸 분석에 따르면, 정치의 포기, 사적 영역으로의 후퇴, 쾌락주의적 개인주의의 부상, 그에 따른 기왕에 축적되어온 슬한 공적 토론의 무력화, 가속화되는 포디즘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도입 따위가 68년 허무주의의 필연적 결과라는 것이다. 아롱의 연구를 비롯해 다양한 68년 해석에 대해서는 Ferry and Renault(1986/1995, 2장)를 참고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Ross(1995), Callinicos(1989) 등을 보라.

### 3. 공간생산론의 실천적 함의

#### 1) 공간생산의 세 계기<sup>2)</sup>: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의 공간

르페브르가 『공간의 생산』에서 공간생산의 세 계기로 제시하고 있는 개념들은 그들의 변증법적 관계만큼이나 개념 자체도 서로 뒤섞여 있다. 이들 개념이 많은 오해와 불일치를 일으키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실제로 이들 개념은, 예의 르페브르식대로, 나뉘어져 있되 나뉘어져 있지 않다. 생산이라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다른 쪽으로 전화되거나 충돌하여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르페브르는 이들의 독자적인 역할보다 변증법적 상호관계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강조가 개념 자체의 정의를 열어놓는 르페브르 특유의 서술체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소개하거나 방법론으로 삼는 여러 저서들에서 이들 세 계기가 서로 다르게 읽히고 있으니 만큼 이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르페브르의 풍부함을 감소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를 중심으로 그에 담긴 실천적 함의를 풀어보자.

공간적 실천<sup>3)</sup>은 (사회적) 지각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코

- 
- 2) moment를 계기로 번역하였는데, 헤겔의 변증법에서 이 용어가 계기로 번역되고 있음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물론 헤겔적 의미는 아니지만, 이들 세 계기들이 공간생산의 단순한 합산적 요소가 아니라 공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 벡터라는 과정상의 의미와 또한 각각의 독자적 역할이 다른 계기들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서 작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차용하였다.
- 3) 공간생산의 한 계기로서의 공간적 실천이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내가 사용한 공간적 실천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즉 르페브르 이론의 실천적 함의를 지목하기 위해 이제껏 내가 사용한 공간적 실천이라는 용법은, 우리나라에서 ‘실천’이라고 하면 으레 ‘혁명적 실천’으로 받아들여지곤 하는 용례에 기대고 있다. 이러한 ‘실천’ 표현에 어느덧 내재된 무조건적 진보성 탓에 르페브르식 공간생산의 한 계기인 ‘공간적 실천’도 원래의 단순반복적인 실태, 실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뭔가 대안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드러난 공간의 경험을 통해서 규범화된 실천을 말한다.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맑스가 포이에르바하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감성과 지각이 형식이 아닌 감성과 지각 자체가 인간의 사회적 실천임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르페브르는 이 개념을 통해서 ‘지각’의 적극적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공간적 실천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하지만 서로 연결된 층위로 구별할 수 있다. 예컨대, 다양한 공간적 장치들, 곧 집이나 학교, 시장, 백화점 따위의 ‘특정한 공간 안에서 규범화된’ 행위들과, 이런 공간적 장치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공간적 그물망 위에서 (여러 스케일로) 규모화된’ 행위들로 구별지을 수 있다. 전자의 개별화된 공간적 실천들에는 주로 사회적 행위의 역사적 코드로서의 또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기제로서의 문화가 개입되며, 후자의 규모화된 공간적 실천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공간적 실천은 과거이며 현재이며 또한 미래이다. 그것은 일상적이며, 바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지닌다. 공간적 실천의 지속성과 일정정도의 일관성은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며 일상생활의 실천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권력이 공간의 재현을 통해서 공간의 생산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는 근원적 힘이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피지배자에게 주어진다.

공간의 재현은 구상된 공간이다. 데카르트적 공간이다. 합리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적 자본주의의 공간발상법에서는 비합리성의 공간들, 상상의 공간과 감각적 경험의 공간들을 모조리 어떠한 논리로 (재)구성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제한’과 ‘처방’을 통해 상상과 육체의 경험이 키워내는 저항성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공간의 재현은 담론적이며 동시에 실재적이다. 바꿔 말해서 공간의 재현은 실재와 부재를 연결한다(Shields, 2000: 99). 이를테면 건물이나 기념비, 도시계획, 그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간적 조직 따위의 물질적인 형식으로 추상적 개념—혹은, 이데올로기—을 현실에 구체화시키며, 여러 가지 매체를 이용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과 해당 공간 사이에 허상의 관계를 만들어낸다. 부재가 실재로 전화

하는 순간이다.

공간의 재현은 어느 사회에서나 공간생산의 모든 국면을 지배한다. 여기서 지적해두어야 할 것은 공간의 재현이 단일하지 않으며,<sup>4)</sup> 지속적이지도 않다는 점이다. 공간적 실천이 어느 단계에서 기존사회의 재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때, 기술의 발전이 재현의 방식 자체의 변화를 요구할 때, 새로운 공간의 재현은 이제까지의 연속성을 훌훌 털어 버리고 변신한다.

재현의 공간은 세 계기들 가운데 가장 난해하고 다양한 독해를 불러일으킨다. 먼저 ‘재현’이라는 개념의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해를 도울 듯하다. 재현(또는 표상)은 감각 또는 지각에 의해 외적 대상의 심상이 주관에 따른 조합으로 재생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말한다(『철학사전』: 737). 따라서 지각의 단순한 작용으로서의 공간적 실천과 구별되지만 또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재현의 공간은 규범화된 공간적 실천을 벗어난, 또는 공간의 재현과 충돌한 공간적 실천들이 행해지는 공간이다. 주어진 길, 주어진 방식을 거스른다는 의미에서 전형적인 탈주의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능동적이고 완전한 경험의 공간이다. 바로 구체적 추상화로서의 재현의 공간이라는 개념은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을 정치적 실천론으로 전화시키는 중요한 지점이다. 피지배자의 재현이라는 실천은, 잠재적으로나마 항존하는 일상생활의 창조적 측면에서 비롯된다. 수동적 경험으로 점철된 소외투성이 일상생활의 공간실천으로부터 저항적이고 전복적이며 차이를 생산하는 실천으로서의 재현의 공간을 찾아냄으로써 공간생산의 ‘능동적’ 주체를 스스로 세우는 곳이다. 일상적 실천이 해방되는 곳, 그곳이 재현의 공간이다. 이러한 재현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그것은 현실적 경험에 근거한 인간의 ‘상상력’에서 찾아진다. ‘상상’은 인간적 창조성의 본원지이며 해방을 갈구하는 육체적 욕망의 산물이다.

가령, 이안 보든(I. Borden)은 스케이트보딩을 규범화된 도시공간 내에서의 행위들에 맞섬으로써 도시공간의 모순을 드러내고 새로운 긴장을 연

4) 실제로 르페브르의 삼중계기 속에서 공간의 재현과 재현의 공간은 각각 복수로 사용되고 있다.

출해낸다고 하였다.<sup>5)</sup> 스케이팅보딩은 도시공간의 ‘능률성’과 ‘경제성’이라는 논리에 혼란을 만들어내며, 경제적 생산이 지배하는 공간에서 비경제적 놀이가 인간살이의 중심에서 배제되어온 것에 대한 항의이다. “공간은 ‘no’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육체의 공간이므로 ‘yes’의 공간, 삶이 확인되는 공간이기도 하다”(Lefebvre, 1991: 210)라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 2) 불가능의 가능 찾기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지 않는 혁명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충분히 현실화시키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삶 자체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단지 이 데올로기적 상부구조나 기구 또는 정치적 기제만을 바꿔놓은 것이므로 실패한 것이다. 사회의 개조가 진실로 혁명적이라면 일상생활과 언어 그리고 공간에 미칠 참신한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Ibid.: 54).

위에서 언급하였듯 르페브르는 자신의 공간생산론이 차이의 공간<sup>6)</sup>이라는 기획을 위한 전략적 전술이라고 못 박는다. 차이의 공간은 소외되지 않은 총체적 경험을 가능케 하는 일상생활을(이) 만들어내는 공간이며 그러므로 새로운 사회, 새로운 생산관계의 획득을 통해서 온전히 현실화된다.<sup>7)</sup> 차이의 공간이라는 전망은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이지만,<sup>8)</sup>

5) 실제로 몇몇 서구 대도시에서는 스케이팅보딩을 법적으로 금지해놓고 있기도 하며, 건축주와 건축가는 건물 입구쪽의 그럴법한 곳에다 아예 스케이팅보딩 방지용 건축적 장치를 덧붙태는 고약한 심보를 부리기도 한다. 스케이팅보더들은 이에 대해 ‘스케이팅보딩은 범죄가 아니다’, ‘스케이팅보딩을 그만 괴롭히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단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Borden, 1998).

6) 일련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차이라는 개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소자(Soja, 1996)의 모호한 개념인 ‘차이가 만들어내는 공간’으로서의 제3의 공간(thirdspace)은 르페브르의 차이의 공간과 같은 전망을 담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르페브르는 새로운 사회를 사회주의/공산주의로 이름짓기 꺼린다(Lefebvre, 1991: 381). 그는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는 새로운 사회관계에 합당한 공간을 생산하지 못하고, 성장과 축적의 길(자본주의적 길)을 따라 사물을

대향공간 생산의 나침반이며 현실에서 그려지는 대향공간들에 의해서 결국에는 완성될 그림이다.

르페브르는 자본주의적 추상공간의 현실의 모순과 갈등에서 ‘모순적 공간’이 생산된다고 한다. 이 모순성이야말로 새로운 사회에서 꽃필 차이의 공간의 씨앗이다. 모순적 공간은 공간의 점유, 일탈, 유착이라는 방식<sup>8)</sup>으로 현실공간의 대향공간으로 생산된다.

점유(appropriation)는 소유(권) 개념과 구별되며 지배 개념과 대립된다. 르페브르는 점유공간을 ‘어떤 집단의 요구와 잠재성이 실현되도록 개조된, 그 집단이 점유한 자연스러운 공간’이라고 정의한다(*Ibid.*: 165). 다시 말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공간적 실천과 재현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충분히 경험되는 공간이고 따라서 자본주의 추상공간의 교환가치를 극복한, 사용가치의 공간이다. 이 점유의 방식은 다른 방식들보다 대향공간 생산에서 가장 견고한 역할을 한다. 서울의 탑골공원을 예로 들어 보자. 그곳은 우리의 짐작을 배반한다. 그곳은 무료급식이나 소일 따위의 수동적인 형용사가 따라붙을 곳이 못된다. 할아버지들은 그들이 소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지각한 공원에서 한국의 서구적 근대화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그리고 그들의 육체<sup>10)</sup>에만 희미한 흔적으로 남겨진 문화들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탑골공원의 완전한 점유자가 되었다.<sup>11)</sup> 그래서 서울시가

---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공간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Ibid.*: 357). 또한 현실에 대한 대안적 기획이 미래에 대한 구체적 예언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Ibid.*, pp.419-20을 참조하기 바란다.

- 8) 1999년 사회평론사에서 출판된 시인 김정환의 산문집 제목인 『전망은 그럴 수 없는 아름다운 그림』에서 빌려왔다.
- 9) 이는 『공간의 생산』에서 따온 용어들이지만, 모순적 공간이 생산되는 일련의 방식들로 일목요연하게 제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래의 재구성은 전적으로 필자의 해석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이와 더불어 ‘점유-일탈-유착’의 과정이 단선적·우열적 단계들이라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열린 연속체의 특정 지점들로 이해되어야 함을 못 박아 두자.
- 10) 이런 의미에서 모든 육체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육체이다.
- 11) 탑골공원 할아버지들의 문화에 대해서는 KBS 다큐멘터리(2000년 3월 24

월드컵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유적지 보존을 위한 공원시설 정비 및 유료화 계획(일종의 ‘공간의 재현’의 무차별화 시도)도 철회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일탈(diversion)은 주어진 공간에 그 본래의 기능이 아닌 전복의 모멘트가 끼여들지만 후자가 전자를 압도하지는 못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명동성당이 여러 사회운동의 상징적 공간이 된 것이나, 자전거/스케이트를 타기 위한 청소년들의 공간이기도 했던 지금은 없어져 버린 여의도 광장, 민주화투쟁 과정에서의 거리점거 따위를 들 수 있겠다. 이들은 기존의 지배적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지는 못했지만, 대항공간 생산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Ibid.*: 167).

마지막으로 유착(co-optation)이란 ‘지배와 점유를 매개하는 실천이며, 공간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대립을 중재하는 실천(*Ibid.*: 368-9)’이라고 르페브르는 정의한다. 지배적 구조와 질서에 포섭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항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간생산에 적극적 역할을 함은 사실이다. <인사동 전통문화 보존회>와 도시연대의 <인사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서울시의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계획과의 협조(물론 갈등도 함께)로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인사동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다.

#### 4. 일상생활에서 대항공간 생산하기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론은 공간생산론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대한 뼈뚫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르페브르는 거대한 사회구조에 짓눌린 하찮은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이야말로 그 거대구조와 지배방식을 옹골게 밝혀낼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사소하고 당연한 것으로 방치되었던, 억압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수동적 장으로 치부되었던 일상생활에서

일) “현장르뽀, 제3지대: 탐골공원의 스타들”을 보라.

거꾸로 사회변혁의 능동적 힘을 찾아내려 한다. 사회구조에 대한 해석을 주체의 능동적 실천과 맞붙이는 르페브르의 일상생활론은 그의 공간생산론과 더불어 실천의 이론으로서, 과학적 전망의 이론으로서 자리매김될 법하다.

루카치(Georg Lukacs)와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일상생활을 따분하고 기계적이며 반복적인 하찮은 삶으로 규정하면서 ‘진정한 삶’과 대립시켜 놓았고, 드 세르토(Michael De Certeau)가 일상의 창조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지배권력의 규율망에서 벗어난 전술적 실천으로서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르페브르는 일상생활 개념에 양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아날학파가 일상의 구조를 견고하며 지속적인 것으로 본 반면, 르페브르는 그 자체가 품고 있는 모순과 긴장을 강조하였다.

르페브르가 보기에 일상생활은 본질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일상은 안정적이고 불변적이면서도 언제나 과정적이고 불완전하다. 합리적 진보라는 단선적 시간의 반복에 따르면서도 자연의 순환적 시간에 따라 변화의 순간을 갖기도 한다. 단조롭고 정해진 틀에 갇혀 있으면서도 통제와 놀이가 병존한다. 기술적 합리주의와 자본주의에 의해 조작되고 통제되지만 또한 그러한 구조와 힘의 전일적 지배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일상이다. 다시 말해 일상은 사회적 실천과 재생산의 시공간으로서 지배가 향하고 저항이 생성되는 장이다. 창조성과 수동성,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립적인 것들의 병존이 만들어내는 모순과 긴장이 바로 일상생활론의 중심에 있다.

일상은 흘러가도 흘러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강과도 같다. 그것은 확고한 실체이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의 변화이며 변화 속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견고한 실체의 변화가능성을 바로 그 일상성 내부에서 찾는 데 르페브르 실천론의 힘이 있다. 드 세르토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하고(De Certeau, 1984), 알프 뤼트케가 바로 그 하찮은 일상생활의 실천이 갖는 정치성을 주장한(Lüdtke, 1982) 반면,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의 비판을 통해서 일상생활 자체의 변화를 요구한다.

르페브르는 단선적인 자본주의적 시간을 벗어나는 ‘자발적 순간’<sup>12)</sup>들이 일상생활 곳곳에 포진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비일상적 체험이 자본주의적 일상성을 폭로하고 비판하며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한다. 단순소비가 아닌 창조적 재생산을 위한 ‘여가’와 억눌린 저항 에너지가 응집·폭발하는 지점으로서의 ‘축제’가 바로 그러한 자발적 순간이다.

여가와 축제는 경제적 시간을 중심으로 조직된 자본주의적 시간을 벗어나 있다. 그리고 경제적 생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공간 조직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그리고 여가와 축제는 반복적인 일상생활과는 다른 ‘자발성’과 ‘혼란’의 체험을 제공한다. 축제는 일상의 질서를 흐트러 놓음으로써 일상의 모순을 두드러지게 하고, 난장판의 혼란 속에서 무기력한 수동적 일상생활의 줄기찬 흐름이 차단된다. 지배적 질서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순간, 기존 질서에 반하는 난장의 순간이 만들어질 때, 새로운 질서를 상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축제는 조작된 소비와 같은 사적 체험이 아니라 ‘대동(大同)’의 공동체적 체험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적인 파편화된 개인의 일상성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여가라는 비경제적 시간 역시 ‘소비조작의 관료사회’에서 반복적이고 동질화된 경우 씨물라크라로 변질된 조작된 순간으로 전락하며, 르페브르 역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르페브르는 이들 자발적 순간이 주는 비일상적 체험이 일상적 체험의 수동성과 조작성을 드러낼 비판적 잣대로서 또는 지향점으로서의 현실적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보들리야르와 갈라선다(Shields, 1992: 104).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은 이러한 일상생활의 변혁에 대한 그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가 ‘혁명의 축제’를 통해 일상생활의 변혁을 꾀하려 했던 68혁명의 실패는 공간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일상 구석구석으로 권

12) 르페브르의 순간(moment) 개념은 그의 ‘실재(presence)와 부재(absence)’의 개념과 나란히 ‘총체적 인간’에 대한 그의 지향에서 비롯된다. 소외되지 않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경험이 실제의 순간이다. 이에 대해서는 Shields, 1992를 보라.

력이 행사되고 있다는 깨달음의 교훈이 되었고, 권력이 공간을 생산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을 생산하는 방식을 찾고자 한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노력의 결과가 『공간의 생산』에 모아졌다고 하겠다. 일상공간에서 대항공간을 생산하여 일상을 변혁하려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실천적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르페브르의 공간실천은 ‘상상’의 실천이다. 상상은 (망상이나 공상과는 달리) 현실을 토양으로 자라는 창조적인 이상이다. 그것은 육체의 자연적 요구이며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이다. 상상은 현실적 경험의 한계를 반영하지만 그것의 경계를 넘어서 있고 그리하여 현실의 경험의 폭을 끊임 없이 넓혀나가는 작용을 한다. 이야말로 르페브르 실천론의 근간을 이루는 ‘상상’의 실천적 확장성이다. 르페브르가 보기에 인간은 무엇보다 ‘상상하는 인간’이고, 그 상상의 동력으로 미래를 현재화함으로써 변혁을 체현할 역군이 된다. 사소하고 모호한 현실과의 끊임없는 조우에서 과학적인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르페브르의 공간생산론의 실천성이다.

“대항공간은 우리들 주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경향은 다의적이고 모호하지만”(Shields, 2000: 184). 르페브르를 실천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이런 다의적이고 모호한 경향으로 숨어 있는, 혁명적 실천의 눈만으로는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다양한 일상생활의 실천들을 과학적 상상력으로 끄집어내어 더 넓은 지평으로 확대해내고 여타 혁명적 실천들과 결합시켜내는 일이다. 즉 르페브르 이론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구체적 경험과 실천을 통해서 다시 읽혀지고 고쳐져야 하는 실천의 이론이고 열린 이론이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Bernstein, R. J. 1971, *Praxis and Action*, 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Press.
- Callinicos, A. 1989, *Against postmodernism: A Marxist critique*, Cambridge: Polity Press.
- De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Ferry, Luc and Alain Renaut. 1986, 『68사상과 현대 프랑스 철학』, 구교찬, 노대명, 박성창, 주형일, 최애영, 홍성민 옮김, 1995, 인간사랑.
- Harvey, D. 1973, 『사회정의와 도시』, 최병두 역, 1983, 종로서적.
- \_\_\_\_\_. 1989,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구동희, 박영민 역, 1994, 한울.
- Hoffman, J. 1975, *Marxism and the Theory of Praxis*, London, Lawrence & Wishart.
- Lefebvre, H. 1991a, *Production of Space*, Nicholson-Smith, D.(trans.) Oxford: Blackwell
- \_\_\_\_\_. 1991b, *The Critique of Everyday Life V.1*, Moore, J.(trans.), London: Verso.
- \_\_\_\_\_. 1996, *Writings on Cities*, Kofman, E. and Lebas, E.(trans. and eds.), Oxford: Blackwell
- Lüdtke, 1982, "The historiography of everyday life: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in Samuel, R. and Stedman, J.(eds.), 1982, *Culture, Ideology, and Politics*.
- Ross, K. 1995, *Fast cars, clean bodies: Decolonialization and reordering of French culture*, Cambridge and London: MIT Press.
- Shields, R. 1992, "A truant proximity: Presence and absence in the space of moder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10, pp.181-198.
- \_\_\_\_\_. 2000, Lefebvre, *Love & Struggl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Soja, E. W. 1996, *Thirdspace: Journeys to Los Angeles and other real-and-imagined places*, London and New York: Blackwell.